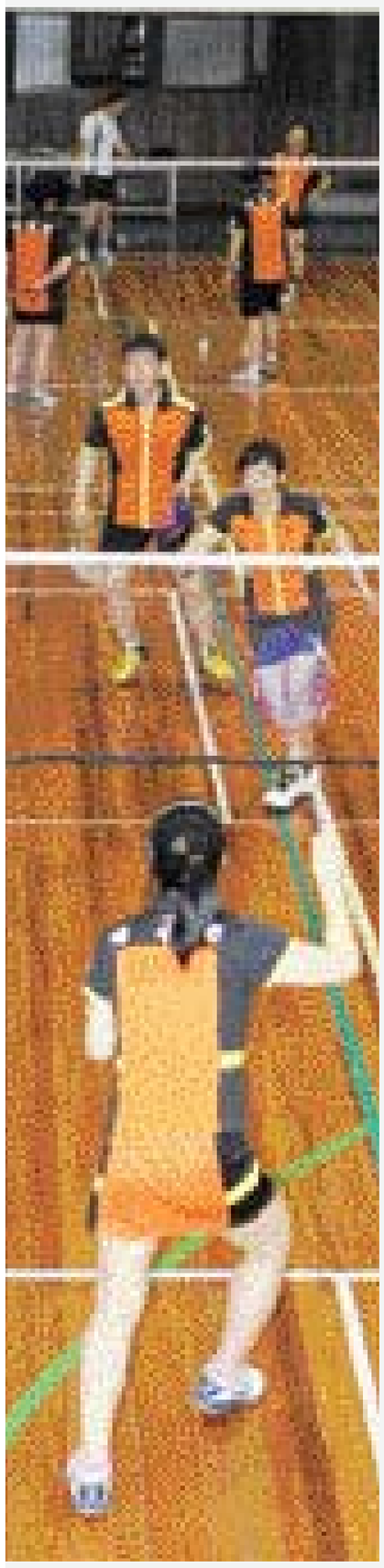
‘러브 스매싱’ 세상 시름 날린다



■ 배드민턴 동호회 무진클럽

회원 60여명 중 부부 8쌍

끈끈한 정 쌓으며 건강 다져

아마추어 최고수 회원만 13명

광주 대표 클럽 자리매김

“파이팅! 힘냅시다!”

지난 8일 밤 9시. 여느 때보다 일찍 찾아온 한여름 더위로 가만히 있어도 땀이 흐를 정도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하지만 남구 방림초등학교 체육관에는 배드민턴을 즐기는 동호인들의 거친 숨소리와 함성으로 후끈 달아오르고 있었다.

시속 200㎞이상의 속도로 날아가는 셔틀 콕을 받아 넘기고, 다시 혼신의 힘을 다해 스매싱을 하는 이들은 광주무진배드민턴 클럽 동호회 회원들.

6개의 코트에서 복식게임을 즐기는 이들은 이제 겨우 30여분이 지났을 뿐인데 온 몸이 흠뻑 땀에 젖어있다. 잠깐 숨을 몰아 쉬는 사이 얼굴에선 구슬땀이 쉴새 없이 흘러내린다.

광주무진클럽은 광주에서 처음 꾸려진 ‘광주클럽’과 비슷한 역사를 갖고 있다. 지난 1985년 1월 45명의 회원으로 출발한 무진클럽은 현재 남자 47명, 여자 15명등 총 62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지난 2002년까지는 새벽반으로 활동을 했었으나 회원들의 요청으로 2003년 4월부터 야간반으로 변경해 운영하고 있다.

매일 저녁 8시 30분~10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방림초등학교 체육관에서 배드민턴을 통해 땀을 흘리며 건강과 화합을 다지고 있는 이들은 24년의 역사와 더불어 실력도 광주에서 상위권을 자랑한다.

광주에 100여개 클럽이 활동을 하고 있지만 무진클럽은 운암클럽과 함께 최강으로 손꼽히고 있는 것. 현재 가장 고수급인 A조에서 게임을 하는 회원들이 모두 13명이나 돼 광주시내 클럽 가운데에서는 가장 많은 고수를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무진클럽은 부부회원이 8쌍이 있어 가족같은 분위기와 21살의 이충교 회원부터 54세의 이병길 회원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회원들이 모여 특유의 응집력으로 여타의 클럽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이성태 (40)회장은 “저희 클럽은 다양한 연령층이 최소 2~3년이상 씩 활동을 하면서 우의를 다져와 동호인 이상의 끈끈한 정으로 뭉쳐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고 말했다. 이처럼 무진클럽은 8쌍의 부부가 회원들의 분위기를 주도하기 때문에 여타의 클럽보다 훨씬 가족적인 분위기가 짙다.

서상준·박명숙씨 부부는 3년전부터 배드민턴을 부부가 함께 시작해 거의 매일 거르지 않고 출근부에 도장을 찍고 있다. 서상준씨는 “배드민턴이 중독성이 강한 운동이다”며 “부부가 함께 하면서 건강도 챙기고, 스트레스 해소도 하면서 더불어 금슬도 좋아진다”고 귀띔했다.

김종욱(40)부회장은 무진클럽의 최고수. 10년 경력의 김 부회장은 전국 배드민턴 A조에서 게임을 뛸 정도로 기량을 인정받고 있다.

김 부회장이 남자부 최고수라면 여자부에서는 김정임(37)씨가 최고수다. 5년 경력의 김 씨는 무진클럽에서는 유일하게 A조에서 활약하고 있으며 각종 대회에서 다양한 수상경력을 자랑한다.

이병길(54)회원은 클럽 회원중 최고령이지만 1년 중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는 개근생으로 회원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 가장 고령이면서도 매일 빠지지 않고 배드민턴과 함께 하기 때문에 어린 회원들은 결석하기가 민망할 정도다.

이병길 회원은 “배드민턴은 이제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생활이 됐다”며 “건강을 지키는데 이만한 운동이 없다”고 말했다.

최준상(38)회원은 배드민턴 예찬론자다. 그도 그럴것이 배드민턴을 시작하기 전 94㎏에 고혈압으로 고생했는데 5년전 배드민턴을 시작하고부터 1년만에 77㎏까지 17㎏감량에 성공하고 건강을 찾았다.

최 회원은 “배드민턴은 저에게 새로운 삶은 선물해줬다”며 “17㎏감량에 성공해 이제 그 체중을 유지하면 건을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주변에 다이어트 하고 싶은 사람은 배드민턴을 하라고 권유하고 다녀 ‘배드민턴 전도사’가 됐다.

이 회장은 “무진 클럽은 방림초등학교가 운동에 최적의 체육관을 제공해 주고 있는데다 가족같은 회원간의 끈끈한 정, 더불어 최상의 실력파들이 모여 광주를 대표하는 배드민턴 클럽으로 자리매김했다”고 활짝 웃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24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무진배드민턴클럽은 부부회원 8쌍 등 62명의 회원이 가족같은 분위기속에서 화합과 건강을 다지고 있다.